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 연구 — 요한1서를 중심으로 —

정창욱*

1. 문제 제기

그리스어 시제에 대한 견해는 지난 수십 년간 신약학계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동작의 종류”(Aktionsart) 이론은 20세기 말부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은 “동사 상”(aspect) 이론에 그 자리를 내어 주고 말았다.¹⁾ 그런데 동사 상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다양하여 학자들 간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시제에 대한 이해가 서로 상반되기도 한다.²⁾ 이러한 시제에 대한 견해의 혼란은 성경 주석가들에게 곤혹감을 불러일으키며 혼란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각자 자신이 따르는 동사 시제에 대한 이해를 따라 본문을 해설해 나가곤 하며, 어떤 경우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명쾌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³⁾ 이러한 현상은 때로는 동사 시제에 대한 학자들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cwjung21@gmail.com.

- 1) “동사 상”이론이 20세기 말에 등장한 것은 아니며 이미 일반 언어학에서 20세기 초중반에 등장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성경 그리스어에 영향을 미친 것은 20세기 말이라 할 수 있다. C. R. 캠벨, 『성경헬라어 동사 상의 기초』, 이상일 역 (서울: 그리스심, 2017), 26-28.
- 2) 대표적으로 당장 동사 상의 종류를 몇 가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나누어져서, 두 개나 세 개나 심지어 네 개로 상을 나누기도 한다. 또한 특정 시제를 어떤 범주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아래의 “2. 현재완료의 의미” 부분을 참조하라.
- 3) 이러한 현상은 요한1서의 주석서에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크루즈의 3:6, 9에 대한 설명

간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거나, 아니면 주석가 자신이 시제와 관련된 견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지니지 못할 때 나타난다. 이런 난해함은 주석가들만이 아니라 번역가들에게도 고통을 안겨 준다. 신약성경 원문에 근거하여 번역을 시도할 때 마주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리스어 동사 시제의 올바른 이해와 번역이다. 이때 주석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에 대한 견해의 혼란 때문에, 때로는 번역가 자신의 그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결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게다가 번역 대상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사 시제의 의미를 담아내야 하는 까닭에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최근에 성서공회에서 출간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에서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의 번역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성경 원문에서 바로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 그리스어 동사 시제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은 번역자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은 번역자들에게 큰 짐을 없어 주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완료 시제의 이해 자체가 다른 시제들보다 특별히 더 복잡하고 그것을 한글로 담아내는 것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그리스어 동사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을 살펴보면서 『개역개정』이나 다른 한글 성경과 비교하여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리스어 시제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⁶⁾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그리스어 시제에 대한 견해를 제대

에서 발견할 수 있다. C. G. Kruse, *The Letters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00), 126-32를 보라.

- 4)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은 원문에 근거하면서도 젊은 세대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번역을 추구하여, 성경 원문의 올바른 반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추구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의 신약과 시편의 머리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어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새롭고 참신한 용어와 방식을 사용하되, ‘성경’으로서 ‘원문’에 최대한 충실히 번역되도록 하였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의 원칙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머리말을 참조하라.
- 5) 정창욱, 『성경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이해』 (서울: 그리스, 2012), 68.
- 6) 번역 방식은 크게 형식-중심적(form-driven) 번역과 의미-중심적(meaning-driven)번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모든 번역 성경은 두 가지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추구하지만,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며, 강조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성경 번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D. Dewey, *A User's Guide to Bible Translation: Making the Most of Different Versions*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4), 34를 보라. 또한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 것 외에 그 이상의 방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S. E. Porter, “Assessing Translation Theory: Beyond Literal and Dynamic Equivalence”, S. E. Porter and M. J. Boda eds., *Translating the*

로 이해하고 나아가 그 견해에 근거하여 어떻게 그리스어 시제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때 범위를 좁혀서 요한1서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몇 가지 타당한 근거가 있다. 우선 요한1서에서 현재완료의 빈도수가 유난히 높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단순 빈도수에서 요한1서에 직설법 현재완료 시제가 44번 등장하여 신약에서 8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요한1서의 총 구절에 따른 발생 비율로 환산하면 약 42%에 이르러 신약성경에서 가장 높다. 달리 말하면 10구절 중 4 구절이 넘는 부분에서 현재완료가 사용된다는 것이다.⁷⁾ 또한 요한1서에는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이해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다.⁸⁾ 따라서 요한1서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작업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들을 특정하여 단위로 묶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완료 시제의 의미와 번역 문제와 관련하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단점과 개선점도 밝혀내게 될 것이다. 먼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⁹⁾의 그리스어 현재완료의 번역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2. 현재완료의 의미¹⁰⁾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이해는 혼란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그 이유는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제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¹¹⁾ 전통적

New Testament: Text, Translation,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9), 117-145.

7) 신약성경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책은 요한복음으로 161회인데, 총 878구절 가운데 등장하여 18%가량 된다. 또한 요한1서는 직설법 외에 가정법 현재완료가 2회, 분사의 현재완료가 7회 등장한다. 이 가운데 현재완료분사의 수가 다른 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현상(단순 빈도수 16번 째)는 요한1서에서 분사 자체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8) 대표적으로 요일 4:12의 현재완료를 들 수 있는데, 그 구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에서 다루어진다.

9) 이후부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편의상 『새한글』로 표기하도록 한다.

10) 이 부분의 내용은 필자의 저서, 정창욱, 『성경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이해』, 68-77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고 내용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11)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Clarendon, 1990), 119; 정창욱, 『성경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이해』, 68. 구체적인 난해 사항을 위해서는 아래를 참조하

입장에 따르면, 그리스어의 현재완료는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어서 과거 발생과 현재 상태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과거 발생과 그 사건의 현재적 영향과 효과, 그리고 결과를 나타낸다.¹²⁾ 그런데 전통적 입장을 주창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아마도 영어의 현재완료 가운데 소위 말하는 ‘계속적 용법’이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이해하는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어의 현재완료 시제는 영어의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¹³⁾ 영어의 현재완료 시제의 계속적 용법은 과거의 어떤 시점 이래로 쭉 어떤 행동이나 현상이 지속되는 그림을 제공해 주는 반면에, 그리스어의 현재완료는 과거 발생 시점과 현재 사이의 그 기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런데 현재완료의 이해에 대한 난맥상은 동사 상 이론의 주창자들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에 따르면 우선 시제는 직설법에서조차 어떠한 시간 개념도 담고 있지 않으며 다만 ‘상’만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사 상 이론에서 시제의 상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완료 상’과 ‘미완료 상’이다. 이때 어떤 학자들은 현재완료를 ‘완료 상’으로 보는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미완료 상’으로 이해한다. 게다가 또 다른 학자들은 ‘상태 상’으로 제시한다.¹⁴⁾ 이것은 현재완료의 상의 의미가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완료형은 세 가지 측면 곧 시제(tense)와 동작의 종류(Aktionsart)와 상(aspect)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한다.¹⁵⁾ 그런데 여러 가지 사

라.

12) 패닝(B. M. Fanning)은 전통적으로 현재완료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상 이론을 가미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발생과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103-104, 119-120을 보라. 하지만, 상 이론을 주장하는 포터(S. E. Porter)나 캠벨(C. R. Campbell)은 그런 시간적 의미를 원천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캠벨, 『성경 헬라어 동사 상의 기초』, 68-79.

13) 모울(C. F. D. Moule)은 분명하게 이렇게 주장하며, 패닝도 그런 입장을 펼친다. 특별히 패닝은 영어의 현재완료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는 가운데 맥코어드(McCoard)의 주장을 평가하면서 그리스어의 완료는 영어의 완료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파한다.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107-120. 고전 그리스어 문법서인 굿윈(W. W. Goodwin)의 책에서는 과거 행동의 결과의 지속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 행동의 지속이 아니라 “결과”의 지속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W. W. Goodwi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of the Greek Verb* (Eugene: Wipf and Stock, 1889), 13-14을 보라.

14) 많은 학자들이 현재완료 시제를 완료 상으로 분류하는 반면에 캠벨은 미완료 상으로 분류하여 독특한 견해를 드러낸다. 포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태 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현재완료를 정의한다. 이런 견해들에 대한 논의와 평가를 위해서는 정창욱, 『성경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이해』, 68-77을 보라.

항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완료 시제는 독특한 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현재완료의 상을 ‘상태 상’으로 보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것은 ‘상태 상’이 ‘상’이라기보다는 ‘동작의 종류’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시간 개념도 시제가 담고 있지 않다는 견해도 직설법의 경우에는 시제가 시간을 나타낼 수 있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현재완료는 독특한 상을 제시하여 어떻게 이해하든지 전통적 입장을 반영하여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히 외적인 상과 내적인 상을 모두 담고 있어서 과거 발생을 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현재 상태를 내적인 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¹⁶⁾ 이때 문맥에 따라서 과거 발생을 강조하기도 하고 현재 상태나 결과를 강조하기도 한다. 화용론 (Pragmatics)적 측면으로 볼 때 현재완료는 과거라는 시간을 나타내며 과거 발생과 더불어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새한글』의 요한1서의 현재완료 번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유사한 부류의 동사들을 하나로 묶되 동일 구절에서 다른 유형의 동사의 완료가 함께 쓰일 경우에는 함께 다루도록 한다.

3. 요한1서의 현재완료 시제에 대한 『새한글』의 번역 연구

3.1. 지각동사의 현재완료 시제 번역

3.1.1. 요한1서 1:1의 지각동사들

요한1서 1:1에는 4개의 지각동사가 등장하는데 과거시제와 현재완료 시제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때 『새한글』은 두 시제를 구별하여 번역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바람직하여 새로운 한글 번역의 올바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리스어 현재완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 번역이 반영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어 본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Ὁ ἦν ἀπ’ ἀρχῆς, ὁ ἀκηκόαμεν, ὁ ἐώρακάμεν τοῖς ὀφθαλμοῖς ἡμῶν, ὁ

15)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119-129.

16) 현재완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정창욱, 『성경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이해』, 67-87을 보라.

ἐθεασάμεθα καὶ αἱ χεῖρες ἡμῶν ἐψηλάφησαν περὶ τοῦ λόγου τῆς ζωῆς-

앞서 지적한 전통적 현재완료 이해와 관련하여 일어나곤 하는 오해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번역이 요한1서 『새한글』 성경의 맨 첫 부분인 이 구절에서 등장한다. 이 본문에서 ‘듣다’와 ‘보다’에 해당하는 밑줄 친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완료이며, 이탤릭체로 표시한 ‘주목하다’와 ‘만지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개역개정』을 비롯한 모든 대표적인 한글 성경에서 서로 다른 시제의 사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해 놓았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개역개정』).

가장 최근에 번역된 천주교의 『성경』도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¹⁷⁾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한글』은 두 시제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어 온 것, 우리의 눈으로 보아 온 것,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 보았던 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과거 시제는 “...보았고/만져 보았던”으로 번역한 반면에, 완료 시제는 “...온 것”으로 번역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시도한다. 이 같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완료 시제의 이런 방식의 번역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그리스어의 현재완료는 앞서 설명한 대로 영어의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과는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새한글』이 번역한 대로 과거 발생과 현재 사이의 동작의 지속성에 관심이 없다. 주안점은 어떤 사건의 과거 발생과 그 사건의 현재적 결과와 영향에 놓인다. 둘째, 이러한 『새한글』의 번역은 본문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새한글』처럼 “들어 온 것”과

17) 흥미롭게도 『성경』은 1절의 첫 부분의 εἶμι, 동사의 미완료를 ‘처음부터 있어 온 것’이라고 번역해 놓았다. εἶμι의 미완료 과거를 그렇게 이해한 것인데 학문적으로 정확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정작 완료 시제의 차별성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보아 온 것”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 구절에서 역사적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으로서 저자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이 지니고 있는 말씀의 권위의 근거는 약화되고 만다. 그들의 증언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이 동사의 시제는 보여 주고 있는데 그런 요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¹⁸⁾ 이 완료 시제는 그들이 과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들이 그렇게 그때 들은 말씀이 과거의 박물관적 유물이 아니라 요한이 글을 쓰는 현재도 여전히 생생하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¹⁹⁾

『새한글』의 번역은 그러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똑똑히’나 ‘생생히’라는 부사를 집어넣어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글에서도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똑똑히 보았더니까’라는 표현은 과거에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확실히 보았기에 말하는 지금도 그것을 확신한다는 의미를 담아낸다. 이렇게 ‘똑똑히’ 등의 부사를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 원문에 없는 것을 집어넣는다는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새한글』 번역에도 이 구절에서 “...온 것”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었고, 3:9에서 현재 시제를 번역하면서 문맥을 고려하여 원래 원문에 없는 “줄곧”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²⁰⁾ 따라서 이 구절과 관련하여서도 『새한글』의 번역 대신에 차라리 부사를 집어넣어서 그리스어 동사의 현재완료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있던 것, 우리가 똑똑히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생생히 보았

18) 요일 1:1에서의 지각동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지각동사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한 것을 형상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지각 동사들을 단순히 비유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요한서신의 저자가 반드시 역사적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 것이 아니게 되며, 따라서 그의 저술 내용은 완전히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석가들은 죽음 이전에 지상 사역 가운데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직접적 만남과 동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주로 생각한다. K. H. Jobes, *1, 2, & 3 John* (Grand Rapids: Zondervan, 2014), 46-47; R. Schnackenburg, *The Johannine Epistles* (New York: Crossroad: 1992), 52.

19) 요한1서에 따르면 편지의 대상자들은 그들에게서 분리해 나간 이단자들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요한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권위 있는 참된 말씀 곧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자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저자인 요한의 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하다. 요한1서의 배경과 특별히 분리주의자들과 관련해서는 R. W. Yarbrough, *1-3 John* (Grand Rapids: Baker, 2008), 16-21과 R. E. Brown, *The Epistles of John*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82), 51-71을 보라.

20) 3:6, 9의 시제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정창욱, “요한1서 3:6, 9의 죄 문제 재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206-227을 보라.

으며...

이렇게 번역하면, 그리스어 시제의 의미도 반영하면서 저자의 의도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²¹⁾

3.1.2. 요한1서 1:2, 3, 5의 지각동사들

흥미롭게도 요한1서 1:2에 가면 거기에도 1절에서 『새한글』이 “보아 온 것”으로 번역한 완료 동사와 동일한 동사가 등장하는데 『새한글』은 1절과는 달리 여기서는 단순히 “보았습니다”로 번역한다.²²⁾ 『새한글』의 1절 방식으로 번역하자면 ‘보아 왔습니다’로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3절에도 ‘보다’, ‘듣다’ 동사의 완료가 등장하는데 이때에는 다시 1절과 같은 방식으로 “보아 왔고 들어 온 것”이라고 번역한다.²³⁾ 물론 1절과 3절의 이러한 번역은 한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한글』의 그런 방식이 그리스어 완료 시제가 담고 있는 의미의 한 측면을 표현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글을 쓰는 당시까지도 보고 듣는 것이라는 의미이기에 그리스어의 현재완료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글을 쓰는 현재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점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으며, 만일 그렇다면 2절에서는 왜 현재완료를 단순히 과거로 번역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5에도 ‘듣다’에 해당하는 현재완료 동사인 ἀκηκόαμεν이 등장하는데 『새한글』은 이 경우에는 단순히 “들어서”라고 번역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님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님에게서”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문맥에 맞게 5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다고 할 수 있으나, 만일 그렇다면 1절의 문맥은 앞서 제시한 설명대로 『새한글』의 번역의 정당성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경우에도 ‘분명히’를 집어 넣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권위가 있고 여전히 확신을 주는 소식이라

21) 비록 이런 번역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런 번역의 의미를 전달하는 설명이 이루어져 있다: D. W. Burdick, *The Letters of John the Apostle: An In-depth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85), 98; M. M. Culy, *I, II, III John: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Baker, 2004), 3.

22) 1:2의 그리스어 원문은 아래와 같은데, ‘보다’ 동사는 1절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
καὶ ἡ ζωὴ ἐφανερώθη, καὶ ἐώρακάμεν καὶ μαρτυροῦμεν καὶ ἀπαγγέλλομεν ὑμῖν τὴν ζωὴν τὴν αἰώνιον ἣτις ἦν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καὶ ἐφανερώθη ἡμῖν.

23) 1:3의 전반부의 원문은 아래와 같으며, 두 동사는 형태까지 1절과 동일하다:

ὁ ἐώρακάμεν καὶ ἀκηκόαμεν, ἀπαγγέλλομεν καὶ ὑμῖν.

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분명히 들었다’는 표현은 과거에 확실히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어서 저자인 사도 요한과 동역자들이 전하는 내용의 권위를 드러내 준다. 그들이 직접 들었음을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 1:5는 앞서 1:1과 관련하여 제시한 본 연구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해 준다. 저자 요한의 말씀에 관해 지니고 있는 권위를 강조해 주기 위해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3. 요한1서 3장과 4장의 지각동사들

『새한글』은 4:3의 경우에 “전에”를 넣어 완료인 ‘듣다’를 표현한다: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1:1에서 『새한글』이 한 대로 한다면 ‘들어 온’으로 해야 한다: ‘들어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전에”를 덧붙인다. 이것은 현재완료가 경우에 따라서 과거 발생이나 현재 상태를 강조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과거에 들은 것을 강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후반부의 “이제/지금”이라는 부사(νῦν)와 현재 시제가 함께 쓰여서 보다 명확하게 현재적 실재를 강조해 준다: “이제 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제”와 연결이 되도록 과거에 들은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에”를 집어넣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완료가 과거 발생과 현재 상태 가운데 하나를 강조한다고 본다면 『새한글』의 번역은 문맥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정당성을 가지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4:12에서도 ‘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동사의 완료 형태(τεθέαται)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새한글』은 이렇게 번역한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완료는 화용론적으로 ‘본 적이 없다’로 이해할 수 있다. “여태껏/어느 때든”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부사(πώποτε)와 함께 쓰여서 이런 의미를 강화한다: “어느 때든지 보았던 사람은 없다.”

4:14에서 12절과 동일한 완료 동사(τεθέαται)가 다시 사용되는데 『새한글』은 “자세히 보았고”라고 번역한다. 12절과 동일한 동사지만 문맥을 따라 이렇게 번역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맥을 고려하여 동일한 동사여도 다르게 번역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권장할 만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도 이미 보았고 그 결과도 표현하기에 ‘분명히’ 또는 ‘똑똑히’를 집어넣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맥상 분명히 보았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기에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 연결하면 더욱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사실 본 것과 증언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똑똑히 보았고 지금도 본 결과와 상태가 유지됨으로 확신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것이다.²⁴⁾ 12절과는 달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없이도 완료 시제만으로도 현재 시제와는 대비되고 과거와는 구별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20의 『새한글』 성경의 완료 시제의 번역은 흥미롭다:²⁵⁾

자기가 보아 온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빈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이 구절에서 밑줄친 “보아 온”과 “빈 적”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완료이다. 첫 번째 완료를 대표적 한글 성경 모두 현재로 번역하는 반면에 『새한글』은 완료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긍정적이다. ‘보고 있는’이란 표현이 의미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리스어 현재완료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한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현재완료의 경우에 부정어와 함께 쓰였기에 문맥상 “빈 적이 없는”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 적절하다. 빈 적이 없기에 그것의 현재적 결과도 없기 때문이다.

3:6의 경우에 지각동사인 ‘보다’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 동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번역하려면 바로 뒤따라 나오는 ‘알다’ 동사의 현재완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²⁶⁾ 『새한글』의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를 위해서 완료가 사용되는데 『공동』은 첫 번째 동사는 “보지도 못한”으로, 두 번째는 “알지도 못하는”으로 번역하여 각각 과거와 현재로 번역한다. 사실 완료는 이 문맥에서 진정으로 본 적이 없고 알았던 적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오히려 ‘빈 적도 없는 것이고 안 적도 없는 것입니다.’라고 번역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의미를 부정

24) 1:3에서도 동일하게 보았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다고 선언하여 전파하는 근거와 이유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흥미롭게도 4:14에서 많은 사본들이 ‘보다’ 동사의 과거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언제든”이라는 부사가 있는 12절과는 달리 본 구절에서는 단순과거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을 수 있다. 물론 사본 필사자들이 τ를 실수로 뺐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설명이 더 적합해 보인다.

25) 이 구절의 후반부 그리스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ὁ γὰρ μὴ ἀγαπῶν τὸν ἀδελφὸν αὐτοῦ ὃν έώρακεν, τὸν θεὸν ὃν οὐχ έώρακεν οὐ δύναται ἀγαπᾶν.

26) 3장에 등장하여 4장의 예보다 먼저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펴보아야 할 다른 완료 동사가 연이어 쓰이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 다루었다.

하는 문장의 경우에 “... 한 적이 없다”는 말은 그 결과도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3.2. “완전하게 하다”(τελειόω)와 관련된 번역

요한1서에서는 ‘완전하게 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동사 τελειόω가 사용되어 중요한 개념을 전달해 주기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5의 『새한글』 번역은 원문의 동사 시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제대로 살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 구절의 번역은 『새한글』 번역의 긍정적인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번역은 바람직한 번역이다. 『개역개정』을 제외한 대표적인 한글 성경들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적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⁷⁾ 이것과 더불어 현재완료 동사 τετελειώται를 “이미 완전해진 것입니다”로 해석하여 “이미”를 집어넣어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번역은 탁월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새번역』과 비교하면 차별점이 잘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마치 계명 준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한 조건처럼 들리며 『개역개정』도 애매하여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²⁸⁾ 이런 측면에서 『새한글』 번역은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리스어 완료 시제의 의미를 온전히 살려서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로 하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²⁹⁾

27) 이 경우에 주어적 속격이나 목적어적 속격으로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각각 의미한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121.n.136.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해석이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2:5의 경우는 목적어적 속격으로 분류해 놓는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설득력이 없다.

28)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29)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581은 이것을 “예번적 완료”(proleptic/futuristic] perfect)로 분류하면서, 이것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인 선행 행동에서 나온 상태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4:12의 후반부에는 τελειώω의 완료 수동태 분사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 때 εἰμί 동사와 함께 쓰이며 이 부분을 『새한글』은 이렇게 번역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의 번역, 곧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좀 더 분명하게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로 번역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상호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근거와 원천이 된다.³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완전한 사랑을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다.

4:17 앞부분에 다시 ‘완성되어 있다’에 해당하는 동사의 완료형이 등장하는데 『새한글』은 “이루어졌습니다”로 번역한다: “이것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³¹⁾ “이것으로”는 앞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ἵνα절을 목적으로 본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루어져 있습니다’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로 하면 시제의 의미도 살리고 문맥에도 잘 들어맞는다.³²⁾ 18절에서도 다시 17절에서와 동일하게 ‘완성되어 지다’라는 의미의 수동태 동사 τετελειώται가 사용되며, 이때 부정의 의미를 띠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데 『새한글』은 이것을 “완성되지 않았습니까”로 번역한다. 『새한글』의 번역은 동사의 수동태를 살려내었기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 과거 발생만 표현하는데 오히려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로 하면 적절하게 원문의 의미를 담아낸다고 할 수 있다. ‘두려워하는’에 해당하는 현재분사를 고려할 때,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을 드러낸다.³³⁾

30) 아킨(D. L. Akin)은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D. L. Akin, *1,2,3 John: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Nashville: Holman, 2001), 182.

31) 이 구절의 해석은 아주 복잡하여, 대표적인 3개의 한글 성경 모두 이 구절의 그리스어 문장의 구문을 다르게 이해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하는 대로 “이로써”는 앞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32)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도록 말입니다.”(『새한글』) →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로 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3) M. M. Thompson, *1-3 John*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2), 126-127. 사랑의 삼각관계로 표현하면서 그런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한다.

3.3. ‘사랑하다’ 동사의 완료의 번역

4:10의 시제의 사용은 흥미롭다. ‘사랑하다’를 위해서 첫 번째는 현재완료가 두 번째에는 단순과거가 사용되었다:

ἐν τούτῳ ἐστὶν ἡ ἀγάπη, οὐχ ὅτι ἡμεῖς ἠγαπήκαμεν τὸν θεὸν ἀλλ’ ὅτι αὐτὸς ἠγάπησεν ἡμᾶς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τὸν υἱὸν αὐτοῦ ἰλασμὸν περὶ τῶν ἁμαρτιῶν ἡμῶν.

왜 이런 시제의 변동이 일어난 것일까? 사실 한 문장에서, 그것도 한 쌍을 이루는 문장에서 같은 동사의 다른 시제의 사용을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는 다양성을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³⁴⁾ 그런 까닭인지 상당히 많은 사본에서 첫 번째 ‘사랑하다’ 동사의 완료 시제를 단순과거 시제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히 사본 필사자가 카파(K)를 시그마(S)로 혼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래된 사본에서 두 글자의 대문자가 사용되었을 터인데 두 글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사본 필사자들이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아마도 두 번째 동사의 시제를 미루어보고 문맥을 볼 때 단순과거가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³⁵⁾ 『새한글』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한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 주는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³⁶⁾

이와 관련하여 라틴 불가타의 번역은 아주 흥미롭다:

in hoc est caritas non quasi nos dilexerimus Deum sed quoniam ipse dilexit nos et misit Filium suum propitiationem pro peccatis nostris.

34) οὐχ ὅτι와 ἀλλ’ ὅτι의 사용이 두 문장이 완벽한 쌍을 이룬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35) B.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625.

36) 독일어 성경 가운데 Münchener NT (1998) with Codes(MNT)는 첫 번째 것은 독일어 완료 시제로 두 번째는 과거로 번역했으며, 영어 성경 가운데 ESV, Good News Translation, New Catholic Bible(NCB), Complete Jewish Bible도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Jubilee Bible 2000의 번역은 흥미로운데, 첫 번째 동사를 과거 완료로 번역하고 두 번째를 과거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동사를 미래완료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영어의 과거에 해당하는 완료 형태로 번역하였다. 암시되는 의미는 이렇다: “마치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후에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을 보내셨다.” 이러한 현상은 이 동사들의 시제 사용이 많은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음을 보여 준다. 라틴어 불가타 역본이 의존한 그리스어 성경에도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와는 다른 시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³⁷⁾

이와 관련하여 히버트(D. E. Hiebert)는 두 번째 동사의 과거 시제가 역사적인 구속사역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기술한다.³⁸⁾ 그리스어의 과거 시제에 대한 이런 설명은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10절의 문맥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 따라서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강조되는데 이런 해석은 10절 후반부의 내용 때문에 더욱 힘을 얻는다: 1) 아들을 보내셨고; 2) 죄들을 치워주는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속죄제물” 혹은 “희생제물”은 무언가 대신 죽고 바쳐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런 측면은 완성된다. 또한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현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암시된다고 볼 수도 있다.³⁹⁾ 과거 동사의 사용은 사랑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인데 그런 사랑의 단적인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이다.

그렇다면 10절의 맥락 속에서 첫 번째의 완료 동사는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가?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런 사랑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 사랑을 보여 주셨던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동사를

37) 어쩌면 이런 불가타의 번역이 첫 번째 동사를 과거완료로 이해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인간의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를 불가타처럼 원문을 반영하여 번역하게 된다면 과거완료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8) D. E. Hiebert, *The Epistles of John: an Expository Commentary* (Greenville: Bob Jones University Press, 1991), 202.

39) 요한1서의 소위 “분리주의자들”의 구체적 이단 사상은 밝혀내기 어려우나 서신의 내용을 보건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상 곧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의 정체와 사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다루는 책들에 대한 서지 정보는 앞의 각주 18을 보라.

『새한글』에서 “사랑한”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난점 때문에 문맥을 고려하여 『공동』은 첫 번째 동사의 의미를 풀어서 쓰면서 현재처럼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⁴⁰⁾ 하지만 그런 번역은 현재완료와 과거 시제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므로 『성경』은 다르게 번역한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완료를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과거를 단정적으로 전체적 묘사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신자의 사랑하는 상태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종결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⁴¹⁾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낸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은 드러내 준다.

3.4. ‘알다’ 동사의 현재완료 번역

‘알다’ 동사는 완료 시제에서 독특한 측면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그 의미 때문이다. 현재 알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현재도 알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⁴²⁾ 요한1서 2:3, 4의 ‘알다’ 동사의 현재 완료를 『새한글』은 『개역개정』을 따라서 단순히 현재로 이해하여 ‘안다’로 번역하는데, 그 시제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할 필요성이 있다.⁴³⁾ 특별히 3절에서 γινώσκω 동사가 첫 번째는 현재로 두 번째는 현재완료로 되어 있음에

40) 『공동』은 이렇게 읽고 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느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41)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현재완료를 과거완료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신약에서 현재완료는 종종 과거완료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런 해석은 11절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더하게 된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기 때문이다.

42) 흥미롭게도 캠벨은 현재완료 시제를 미완료 상으로 보는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알다’에 해당하는 οἶδα 동사의 용례를 너무나 자주 인용한다. C. R. 캠벨, 『성경헬라어 동사 상의 기초』, 69-70, 159, 163을 보라.

43) 스토틀(J. R. Stott)에 따르면, ‘안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동사 γινώσκω와 οἶδα가 서로 다른 뉘앙스를 띠게 된다. 그래서 전자는 ‘알게 된다’ 또는 ‘깨닫는다’라는 의미인 반면에, 후자는 ‘사실로 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J. R. Stott, *The Letters of John*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88), 94. 하지만 그런 구별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사의 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본문의 의도를 잘 드러내 준다.

도 동일한 의미로 번역한 것은 아쉽다:

Καὶ ἐν τούτῳ γινώσκομεν ὅτι ἐγνώκαμεν αὐτόν, ἐὰν τὰς ἐντολάς αὐτοῦ τηρῶμε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이로써, 곧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써 압니다.

이탤릭체로 된 동사의 시제가 현재인 것과 달리 밑줄 친 동사는 완료 시제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제의 의미와 문맥을 고려하여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도 『새번역』과 『공동』처럼 ‘알고 있다’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4절 첫 부분의 ‘알다’ 동사의 완료 시제도 『새한글』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로 번역하는데 바로 앞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2:11 이전까지 ‘알다’를 위해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는 γινώσκω였던 반면에, 2:11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동사 οἶδα가 등장한다.⁴⁴⁾ 이것을 『새한글』은 “알지 못합니다”로 번역한다. 이것은 무난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로 하면 완료 의미를 좀 더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13에서 현재완료형인 ἐγνώκατε를 “알았기”로 번역한 것은 크게 아쉽다. 현재 완료 시제의 의미와 문맥을 고려하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로 하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동사 형태가 두 번 등장하는 2:14에서도 『새한글』은 둘 다 “알았기”로 번역하는데 모두 ‘이미 알고 있기’로 하면 문맥상 의미 전달이 더 잘된다고 할 수 있다.⁴⁵⁾ 3:15, 16에 완료형인 οἶδα와 ἐγνώκαμεν이 등장하는데 각각 “아시다시피,” “알게 되었습니다”로 번역한다. 16절의 경우에 『개역개정』은 “알고”로 번역하며 그 후 동사를 봐도 현

44) 현재완료형만 가지고 있는 οἶδα의 동사 상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C. R. 캠벨, 『성경헬라이어 동사 상의 기초』, 74는 οἶδα 동사의 존재가 현재완료의 상을 “완료상”으로 보는 것을 어렵게 하며 따라서 “미완료상”으로 현재완료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이 동사는 예외에 속할 수 있는데, 그 의미 곧 ‘알다’라는 뜻의 특성상 현재완료로서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최소한 ‘알게 되어 알고 있다’라는 과거와 현재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에 현재완료로서 현재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강화된 근접성의 화용론을 설명하면서 화용론에서 현재완료가 강의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C. R. 캠벨, 『성경헬라이어 동사 상의 기초』, 167-69.

45) 『새번역』과 『공동』은 13절과의 관계 속에서 14절의 경우에는 처음의 ‘알다’ 동사만 “이미 알고 있다”로 번역한다.

재처럼 이해한다. 하지만 문맥상 ‘알게 되었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⁴⁶⁾

4:16 전반부에는 ‘알다’의 완료형이 ‘믿다’의 완료형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것을 『새한글』은 “알았으며 또 믿어왔습니다”로 번역한다. 이 경우에 ‘알다’ 동사의 번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 ‘믿다’ 동사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구절에서도 『새한글』 번역자의 완료 시제에 대한 고민이 다시 묻어난다. 이곳에서 사본학상으로 이문이 등장하여 ‘믿다’ 동사의 완료 대신에 현재 동사를 담고 있는 사본들이 여럿 발견된다(A, 33, 436 등). 『개역개정』은 “알고 믿었노니”로 애매하게 번역하며, 『새번역』은 분명하게 과거로 표현한다: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반면에 『공동』은 두 완료 동사를 모두 현재로 번역한다: “알고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로 번역한다.⁴⁷⁾ 그런 면에서 보자면 『새한글』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다. 먼저, ‘알다’ 동사는 그 특성 때문에, 단순히 ‘알고 있고’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여겨진다.⁴⁸⁾ 반면에 “믿어 왔습니다”라는 표현은 장단점이 있으나 장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점은 완료가 단순히 과거나 현재만 함축하지 않기에 그런 점을 담아내려는 시도를 했다는 데 있다.⁴⁹⁾ 다만 “믿어 왔습니다”라는 말은 단편적 측면을 담아낼 수 있고 그리스어의 완료 시제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글의 특성상 “믿어 왔습니다”라는 표현은 믿음의 결과도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46) 『새번역』과 『공동』은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 “알게 되었다.” 이미 다른 번역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그런 이해를 반영한 것은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47) 4:16 전반부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48) 한글에서 현재진행형은 단어에 따라서 어감이 다르다. 예를 들면, ‘밥먹고 있다’는 말은 현재 이전에 이미 밥을 먹기 시작하여 지금도 먹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어 완료의 시상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리스어에서 ‘밥먹다’의 완료를 쓴다면 그것은 현재 밥을 계속 먹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이미 먹었고 지금 그래서 배가 부르며(문맥에 따라서) 또는 힘이 나는 상태를 표현해 준다. 반면에 ‘알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어 완료의 의미를 어느 정도 담아낸다. 이미 과거에 알았고 그래서 지금도 익히 알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알았고 그래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전히 알고 있다는 의미로 보아도 그 결과 확신까지 갖는 걸 은연중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49) ESV는 “we have come to know and to believe the love”로 번역하는 반면에 NIV는 현재로 번역한다. 이것은 이 구절의 그리스어 완료 시제 이해의 어려움을 보여 준다.

4. 결론

이상에서 『새한글』 성경 가운데 요한1서의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올바른 이해와 표현 방법을 탐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 자체의 복잡한 속성과 번역 대상 언어인 한글의 특성 때문에 완료 시제를 적절하게 번역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한글』은 기존의 한글 성경들과는 달리 적어도 요한1서에서 현재완료 시제의 의미를 한글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어 현재완료 시제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한 사실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단락에서 동일한 현재완료 시제가 사용된 경우라도 문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글 표현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는데, 이 같은 지향성은 긍정적이며 격려되어야 마땅하다.

그와 동시에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감지할 수 있었다. 특별히 과거 발생과 현재 상태를 한글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한 측면만 드러내는 표현의 선택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완전하게 되어 있다/완성되어 있다’와 같이 그리스어의 현재완료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한글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으리라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현재완료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새한글』의 방식은 문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완료 시제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분명히’, ‘똑똑히’, 또는 ‘생생히’와 같은 부사를 첨가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민하며 반영해 나간다면 향후에 현재완료 시제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는 의미 있는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요한1서, 그리스어 시제, 그리스어 현재완료, 동사 상.

Bible translation, 1 John, Greek tense, Greek present perfect, verbal aspect.

<참고문헌>(References)

- 메츠거, B. M., 『신약 그리스어 본문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 원문연구소, 2005.
- 정창욱, 『성경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이해』, 서울: 그리심, 2012.
- 정창욱, “요한 1서 3:6, 9의 죄 문제 재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206-227.
- 캠벨, C. R., 『성경헬라어 동사 상의 기초』, 이상일 역, 서울: 그리심, 2017.
- Akin, D. L., *1,2,3 John: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Nashville: Holman, 2001.
- Brown, R. E., *The Epistles of John*,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82.
- Burdick, D. W., *The Letters of John the Apostle: An In-depth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85.
- Culy, M. M., *I, II, III John: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Baker, 2004.
- Dewey, D., *A User's Guide to Bible Translation: Making the Most of Different Versions*,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4.
- Fanning, B. M.,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Clarendon, 1990.
- Goodwin, W. W.,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of the Greek Verb*, Eugene: Wipf and Stock, 1889.
- Hiebert, D. E., *The Epistles of John: an Expository Commentary*, Greenville: Bob Jones University Press, 1991.
- Jobes, K. H., *1, 2, & 3 John*, Grand Rapids: Zondervan, 2014.
- Kruse, C. G., *The Letters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00.
- Porter, S. E., “Assessing Translation Theory: Beyond Literal and Dynamic Equivalence”, S. E. Porter and M. J. Boda eds., *Translating the New Testament: Text, Translation,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9, 117-145.
- Schnackenburg, R., *The Johannine Epistles*, New York: Crossroad: 1992.
- Stott, J. R., *The Letters of John*,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88.
- Thompson, M. M., *1-3 John*,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2.
- Yarbrough, R. W., *1-3 John*, Grand Rapids: Baker, 2008.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Abstract>

**Proper Understanding of the Greek Present Perfect Tense:
Focusing on 1 John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Chang Wook Jung
(Chongshin University)

One of the major problems encountered when attempting to translate from the Greek New Testament is the proper understanding and translation of Greek verb tenses. Problems arise due to conflicting views on the tenses of Greek verbs, and sometimes due to the translator's own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This confusion is accelerated by the challenge of capturing the meaning of verb tenses in the context of the target language.

Considering these elements, the translation of Greek verb tenses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recently distributed by the Korean Bible Society draws our attention. First and foremost, the task of translating the meaning of Greek verb tenses into Korean, the Greek present perfect tense in particular, would have caused many problems for the translators as they carried out the translation work on the basis of the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translation of the Greek verb present perfect tense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to grasp the developments made in comparison to the Korean Revised Standard Version and other Korean Bibles, and to see whether the translation has been done in a desirable direction to reflect recent academic trends in Greek tense studies. The scope of this study is narrowed down to 1 John; this approach is justified by the frequent usage of the present perfect tense in 1 John. A brief overview of the Greek present perfect tense is provided in order before examining the New Korean Translation's interpretation of the Greek present perfect tens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New Korean Translation has taken great pains to properly deliver the meaning of the present perfect tense into Korean, at least in 1 John, and has produced some positive results. Above all, the translator for 1 John worked hard to find a new way of expressing the meaning of the

Greek present perfect tense. However, as there are still some aspects that could be improved, thes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reflected in future translations.